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 본격 시행

고용부,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일자리에 3년간 75억원 투입·고용지원 도,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지역협의회 출범식 개최

전북자치도는 8일 도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농식품산업 14개 유관기관·단체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의 주요정책 및 안전을 심의·의결하고, 다른 부처에서 각각 추진·지원하고 있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고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하여 정책적 빈 공간을 해소

하고,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고용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부산, 인천, 경북, 충북 등 5개 광역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연간 25억 원씩 최대 3년간 75억 원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선정 후 매월 고용노동부·한국고

용정보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했다. 주요사업은 농식품산업분야 상용직 1,300명과 일용직 1,800명의 발굴·채용이며, 지역 농식품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비경제활동인구의 농식품산업으로 유입촉진을 위한 농식품산업 고용지원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지역 식품기업에서 납품,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식품산업 성장지원사업 등의 핵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인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사업 선정으로 지역 주력 산업군이라 할 수 있는 농식품산업의 고용생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질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글로벌 K-Food 메카로서 전북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체감형 농식품산업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은 전북산학융합원이 수행기관을 맡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가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했다.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거점 구축

전북자치도, 산업 특성화 방안 마련 위한 연구용역 마쳐 23개 과제 실행력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병원 등과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생애주기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4대 비전으로 3+1 질환 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특화 4대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서비스 거점 도약을 제시하고, 23개 개별 과제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클러스터 모형으로는 설계-제작 벨트와 실증-인증 벨트로 구성된 병진노선(Two-Track) 전략을 산업 육성의 전략과제로 강력 제안했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는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전문연구원, 원광대학교병원 정정원 교수, 전북대학교병원 고명환 교수, 전북대학교 정형민 교수가 참여해 전문가 의견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전주, 익산, 정읍의 바이오 관련 부서의 참여로 협력체계 조성이 기대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끊임없는 첨단기술 및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도출이 필요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특성과 과제를 통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지역거점병원 등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실현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기업 육성 등 특성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 탄소중립 포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제11차 포럼 개최... 지역 소멸 극복·농촌 회생 위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모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임성진 전북 탄소중립포럼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롯해 산업, 농업, 환경 등 각계각층의 포럼위원,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 발제자로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운동본부 최재관 대표가 나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최재관 대표는 덴마크 삼소섬, 여주시 햇빛두레발전소 등 국내외 사례와 영농형 태양광과 농업이 어떻게 병행이 가능한지 등을 소개하며,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농촌을 회생하기 위해 영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11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열었다.

농형 태양광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원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포럼위원)로부터 제기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전체 포럼위원과 관계자가 참여하

여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상황별 해결 방안, 관계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정책 동향과 법제도 개선 상황을 공유했다. 한편,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도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기반 마련, 신규 사업 발굴, 민관 네트워크 강화 등 전북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강해원 환경복지국장은 "이번이 첫 탄소중립 포럼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셔서 고맙다"며,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호우·폭염 등 재난 대비 가축 질병 발생 차단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호우·폭염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가축질병 증가 차단을 위해 오는 8일 부터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동물의료지원단은 본·지소 총 4개 반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질병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총 3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주요활동은 가축 질병 발생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및 추가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이다. 피해 축산농가가 시·군에 지원을

요청하면 동물의료지원단이 가축의 피해상황과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가축의 진료 및 항생제, 해열제, 소독제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성호 동물방역과장은 "폭염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온도, 환기 등 사양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축사 주변 그늘진 곳의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

전북자치도, 지진 행동요령·물놀이 안전수칙 퀴즈... 내달 4일까지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가 8일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진과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2일 발생한 부산 지진과 같이 전국 어느 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도민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7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대비해 마련되었다. 퀴즈 이벤트는 지진 행동요령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등 2가지 테마를 대상으로 2주씩 진행될 예정이며 전북자치도 공식계정 페이스북, 카카오토티 등 SNS 앱을 통해 안전수칙을 살펴보고 정답 댓글 달기 형태로 간편하게 응모할 수 있다.

추진기간은 8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전북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 다수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수칙만 읽어 보면 누구나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정답자 40명(회차당 20명)을 추첨하여 도내 생산 농산물(2만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기, 계절에 맞는 안전 테마를 선정하여 14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매월 4일)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호우·폭염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가축질병 증가 차단을 위해 오는 8일 부터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한다. 동물의료지원단은 본·지소 총 4개 반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질병담당자, 공수의사, 축협수의사 등 총 3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주요활동은 가축 질병 발생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 및 추가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이다. 피해 축산농가가 시·군에 지원을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